

목포시, 목포수산물유통센터 노후 시설물 현대화 추진

활어위판장·활어회플라자에 UV(자외선) 해수살균 시스템 설치 전국 최고 품질 수산물 제공 발판 마련 "위판환경 개선 위해 노력"

목포시가 3대 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물 랜드마크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의 시설물 개보수 및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활어위판장과 활어회플라자에 UV(자외선) 해수살균 시스템을 설치해 전국 최고 품질의 수산물을 제공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깨끗한 해수의 원활한 유입을 위해 위판장과 활어회플라자 내 해수관을

확충공사를 추진하고, 관로청소 및 주기적 점검 등 위생환경도 개선해가고 있다. 지난 2012년 설치된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가동에 어려움이 있었던 오페수처리장은 정상 가동을 위해

수중펌프 교체, 전기판넬 설치, 시설 제어판 설치 등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목포의 수산물을 책임지는 목포수산물유통센터는 수산식품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이다"며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코로나19로 다소 침체된 수산물유통센터가 활력을 찾고 다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위판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신안군, 섬 데이터 플랫폼 구축 MOU 자원·자산 수집·활용 가치 극대화·디지털 섬문화 향샀

신안군은 지난 25일 'CJ올리브네트웍스(대표이사 차인혁), 전남사회혁신네트웍스(이사장 정순남)와 함께 섬이 보유한 자원 및 자산을 수집·활용하여 섬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디지털 섬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자간 상호협력(MOU)을 체결했다. 신안군청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체결식은 박우량 신안군수, CJ올리브네트웍스 차인혁 대표이사, 전남사회혁신네트웍스 정순남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신안군 섬 자원과 자산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 및 기술 연구 ▲섬 자원·자산 기반의 디지털 섬 문화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교육 등에 상호협력하고, 민·관·거버넌스 협업의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정부 뉴딜 사업의 핵심 동력인 풍력, 조력,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및 역사, 문화, 관광, 해양수산 등 다방면으로

로 풍부한 섬 자원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8년 개관한 신안군 기록관에는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많은 섬 문화 관련 비정형화 기록물이 보관되어 있으며, 주기적으로 지속적인 DB 구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안군이 보유한 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및 정책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는 섬 데이터의 가치를 높여 국가의 미래비전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SW(소프트웨어) 창의캠프'를 신안군에 거주하는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지역 간 IT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비대면으로 인공지능(AI)과 SW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AI 개념을 이해하고 코딩 체험을 하는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안=이덕주기자

'두배 돌려주는 적금' 함평군,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추진

3년 동안 매월 10만원 적립하면 두배 지급

함평군은 2월1일부터 19일까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군이 추가로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3년 만기 시 총 적립금 72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종의 적금 프로그램이다.

저소득 근로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도와 각 시·군이 지난 2017년에 처음 도입했다. 올해 군은 총 23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함평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만 18~39세 청년으로 최근 180일 이내 90일 이상의 근로경력을

갖고 있고 본인 근로소득 2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이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에서 추진하는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2월1일부터 1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

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함평군은 신청자격 요건 등을 심사해 적격 대상자 중 가구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지원사업이 저소득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미래 설계를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거나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김준성 영광군수, 설맞이 수도권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모시송편·굴비·잡곡 등 10여 개 품목...할인판매도



영광군은 지난 20일부터 개최된 김스클럽 야탑점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를 필두로 설 대목 기간에 대도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군은 영광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 중 소비자가 선호하는 모시송편, 굴비, 잡곡 등 10여 개 품목의 판로를 모색하고 신선한 특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 공급하여 대도시 소비자를 고정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영광=서희권기자

영암군 덕진면, 코로나19 방역 만전

영암군 덕진면(면장 이재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방역 활동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덕진면 자율방재단(단장 채평수)과 합동으로 면사무소

와 농협, 우체국 등 면내 주요 기관과 마을 버스 승강장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점으로 방역을 실시하였다. 이재오 덕진면장은 "코로나 확산이

영암=조대호기자



무안군, (주)레드스프링과 40억규모 투자협약 체결

무안군은 25일 전라남도, 양파즙 제조 전문업체인 (주)레드스프링(대표이사 정영복)과 3자간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레드스프링은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수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으로써 주요 생산제품은 양파즙이며, 양파의 주요성분인 케르세틴(항산화물질)의 함유량을 높이기 위해 껍질만을 분리하여 18개월 이상 숙성시킨 후 생양파와 함께 성분을 재추출하는 차별화된 제조 공정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업체는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청계2농공단지에 7,870㎡ 규모의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며, 예상되는 고용창출인원은 22명이다.

무안=이기성기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스카우터 한수원